

에너지 위기에 ‘탈러시아’ 급제동 유럽·프 등 실용주의 움직임 확산

LNG 등 중동발 공급 불안 지속
英, 사할린II 대러제재 일시 면제
韓·日, 기존 러시아산 물량 유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에서 러시아산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일본은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도 기존 러시아산 물량을 유지하고, 중국·베트남은 도입 기반을 확대하거나 신규 공급을 검토하는 등 러시아산 LNG를 활용하는 실용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으로 수입하는 사할린II LNG에 대해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대러 제재를 면제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6월 17일 이전 계약 물량으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시적 예외를 확보했다. EU와 영국의 러시아산 LNG 운송·보험 서비스 제한으로 2027년 이후 도입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가 예외를 요청해 온 결과다.

가스공사의 사할린II 도입량은 연간 150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3%이며 동절기 비중이 높다. 한국은 카타르·미국·호주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해 지난 2023년 러시아산 LNG 수입량을 전년 대비 13% 줄였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할린II는 우선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도 러시아산 LNG 의존도를 낮추면서 사할린II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



호르무즈 해협.

/뉴시스

다. 러시아산은 전체 LNG 수입의 약 9%로, 미쓰이와 미쓰비시가 사할린II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2028~2033년 계약 만료에 대비해 미국산 LNG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사할린II 대체 시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U는 가스 수입 내 러시아산 비중을 전쟁 전 45%에서 12%까지 낮췄지만 탈러시아에는 부담이 따른다. 유럽감사원은 지난달 EU 집행위가 필요한 투자액을 3000억유로로 추산한 반면 회원국의 투자 약속은 543억유로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체 화석연료와 인프라 투자 부족에 낮은 가스 재고까지 겹쳐 겨울철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러시아산 LNG 도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국영 PV GAS는 최근 러시아 노비테크와 신규 LNG 공급과 국제 입찰 참여를 협의했다. 중국은 제재 대상인 '아크틱 LNG 2' 물량을 수입하는 광시성 베이하이 터미널에 이어 연간 500만t 규모의 산둥성 룡커우 터미널을 추가

수입 거점으로 준비하고 있다.

중동발 공급 불안은 러시아산 LNG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LNG 수송량은 지난달 하반기 들어 늘었지만, 이 추세가 이달에도 이어져도 월간 수송량은 전쟁 이전의 25%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러시아의 공급 능력과 기존 장기계약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러시아산 LNG를 배제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도 에너지·자원 교역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며 러시아는 브릭스(BRICS) 등으로 공급처를 넓히고 서방 역시 거래를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7 회원국인 일본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도 다변화와 함께 기존 러시아산 에너지 경로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실용적인 자원의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기후부, 변동금리 연 2.5%→연 2.0%
기업 이자부담 연간 약 50억 감소 전망

정부가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용자 금리를 낮춘다.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에 필요한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용자 사업으로 올해 총 2765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사업비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ESCO와 열수송관 사업은 100%까지 지원한다. 사업장당 융자 한도는 최대 300억원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ESCO 투자 사업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연 2.5%에서 연 2.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기

후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융자 지원기업의 총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 원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후부는 기업의 금융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에 앞서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인하된 금리를 올해 4분기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중소기업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상반기 신차 판매, 가솔린차 비중 첫 50% 하회

5일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신차 판매에서 순수 가솔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수익 좇는 코인 개미… 해외거래소 머니무브

가상화폐 투자자들 활동 범위 확대
2분기 스테이블코인 약 1.7조 순유출
내년 소득 과세시 추가 이탈 가능성

직장인 김상중(35)씨는 지난 4월 한국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2000만원어치 사서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보냈다. 이 자금 중 대부분은 바이낸스에서 가능한 '이더리움 선물'에 투자했다. 그는 "한국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한 선물 투자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 해외 거래소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코인=달러'처럼, 코인(가상 화폐) 가격이 법정 화폐에 연동되는 가상 화폐다. 실제 달러보다 매매나 해외 송금이 쉬워 가상 화폐 투자용으로 많이 쓰인다. 40대 자영업자 이대연(가명)씨는 지난 5월에 한국 거래소 코빗에서 '서클'이 발행하는 달러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사서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옮겼다.

고위험·고수익을 좇아 해외로 활동을 넓히는 가상 화폐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2025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5년 7~12월 한국

5대 가상 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해외 가상 화폐 거래소로 빠져나간 자금은 87조3000억원이었다. 국내에 들어온 가상자산은 88조 6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만 떼어 보면 정반대다. 하반기 해외 출고액이 입고액보다 4조1000억원 많았고, 상반기(5조7000억원)를 더하면 한 해 동안 9조8000억원이 순유출됐다.

올해 들어서도 같은 흐름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순유출된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1조 687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해외로 나간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온 것보다 많았다.

투자자 중 다수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인 가상 화폐 선물 투자를 위해 해외 거래소를 선택한다. 선물 투자는 상품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거래소에선 가상 화폐 선물 투자가 금지돼 있지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중엔 자기 자본의 약 100배까지 돈을 걸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어 초고위험·초고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들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종목 현·선물을 상장해 국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가상 화폐를 약속한 기간 동안 넣어두면 정해진 보상을 주는 이른바 '스테이킹(staking·예치)'을 할 때도 해외 거래소 이자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표시 실물연계자산(RWA)을 비롯해 탈중앙화 금융(DeFi)을 이용하려는 수요도 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옮겨가는 투자자는 더 늘 전망이다. 정부가 12월부터 거래소의 해외 이전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22%를 과세할 방침이어서다. 타이거리서치가 최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68.1%, '개인지갑을 활용한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간(P2P) 거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64.2%에 달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metro

자회사 등 투자처 확대… 실적 개선 기대감

>> 1면 '반도체 투톱, 영업익'서 계속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국내에 약 24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투자액만 약 2100조원에 달한다. 용인과 기존 반도체 단지에 1650조원을 투입하고, 광주에는 400조원을 들여 신규 반도체 팹 2개를 구축한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팹은 당초보다 약 1년 빠른 2029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한다.

HBM 생산능력도 늘린다. 온양에 HBM 팹 5개 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천안의 관련 설비를 증설한다. 이를 포함해 올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거점을 확대한다. 팹1은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하고 팹2는 연말 착공해 2030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국내에서 총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를 추진한다. 용인에 600조원, 청주에 10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네 번째 팹 완공 시점도 당초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긴다.

투자 집행도 시작됐다. 지난 8월 용인

Y2와 청주 M17 건설에 각각 35조2000억원과 19조1000억원 등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인디애나에도 40억달러(약 5조6000억원) 이상을 들여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투자처는 자회사 솔리다임까지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수요가 늘면서 추가 투자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내부 자금과 외부 자본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솔리다임의 미국 기업공개(IPO)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 개선에도 대규모 투자 지출을 이어갈 전망이다.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한 생산시설 확충에 해외와 자회사 투자까지 맞물리면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지난 1일 "자금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투자를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내부 자금과 외부 자본 등 투자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시장 상황과 투자 시점,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